

□ 제32회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시험 총평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변호사입니다.

우선 이틀 간의 시험을 보시느라, 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올해 출제된 노동법 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총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누구나 알지만, '잘(?) 쓰기는 어려운' 주제

- 1교시는 '경영상해고 대상자 선정, 징계절차의 정당성, 파견과 전출'이, ② 2교시는 '성실교섭의무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노조대표자 손해배상책임, 협약자치의 한계'가 출제되었습니다.
- 수험을 성실히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열심히 준비하셨을 주제들일 것입니다. 문제를 보고 큰 쟁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셨을 수 있으나, 막상 쟁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포섭까지 하다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는 문제들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1교시의 1-2문인 징계절차의 정당성 문제나, 2교시의 1-1문인 부당노동행위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포섭'에서 갈린다기 보다는 디테일한 쟁점을 어떻게 잡는지, 그에 따라 법리와 포섭의 흐름과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따라 답안 방향성과 득점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2. 배신하지 않는 '기출문제'

- 저는 수험 노동법 강사로서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과거 노무사시험 기출 뿐만 아니라, 올해 문제도 (노무사시험과 타시험 모두 포함) 기출문제의 철저한 분석을 기반으로 향후 수험을 준비해야 할 필요성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2022년 7월에 선고된 최신판례의 모티브 사례인 '파견과 전출의 판단'문제(1교시 2문)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의 쟁점들은 이미 노무사시험, 변호사모의시험, 변호사시험 등 다수 출제된 바 있는 주제들입니다. 기출문제가 존재한다는 것, 특히 그 중에서도 '반복해서 출제된다는 것'은 결국 이러한 주제들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 요컨대, 노무사시험 및 타시험을 모두 포함하여 노동법 기출문제의 '주제'가 무엇인지, 특히 '최신판례'가 반영된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꼼꼼하게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3. 결국은 ‘포섭’

- 노동법 시험이 평이한 듯 출제된 것 같지만, 올 해는 작년보다 더욱 변별력이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사건으로는, (작년과 비교할 때) ‘주는 문제’와 ‘변별력을 가르는 문제’가 적절하게 잘 조화되어 그 구성이나 난이도 측면에서 법리에 대한 이해 및 사례 해결 능력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좋은 문제들이 출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도(?) 결국 변별력은 당연히 ‘포섭’에 있을 것입니다. ① ‘경영상 해고 대상자 선정, 파견과 전출 판단, 노조대표자 손배책임’ 등 누구나 열심히 준비한 A급 주제의 경우, 판례를 정확히 현출하더라도 ‘이 판례를 이해하고 있는지’는 포섭에서 정확히 드러납니다. ② ‘징계위원회 쟁점, 단체교섭 거부해 태의 부당노동행위’ 문제의 경우, 쟁점 및 논리를 어떻게 구성하고 포섭하느냐에 따라 (다른 문제에 비해) 득점 범위가 당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 결국, 어떠한 문제이든 결국 ‘포섭’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향후 수험 준비를 위해서 ‘포섭’에 대한 학습의 중요성은 계속 강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4. 결 어

- 답안작성 시 목차나 논리 구성에서의 개인차는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벽할 수 없기에 자잘한 실수 내지는 아쉬운 점들도 당연히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수험생분들이 유사하게 갖고 있는 문제점(?)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체적·종합적’으로 볼 때, 법리와 포섭을 나름의 논리에 따라 정확히, 균형있게 다루어주셨다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지나간 시험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는 굳이 생각하지 마시고, 수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모처럼 찾아온 휴식을 충분히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활을 하면서 평소 누리기 힘들었던 소소한 행복들을 충분히 즐기면서 발표일까지 기다려봅시다(행복은 멀리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과 행복’을 진심으로 소망하고 있겠습니다 😊

ps) 첨부된 해설은 저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고, ‘정답’이 아닙니다. 때문에 제가 구성한 내용과 다르다고 해서 좌절하실 필요가 전혀 없음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점수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설은 ‘참고’하시는 정도로만 보셨으면 합니다.

+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은 (6문제 모두) 2~3기 모의고사 해설 답안을 기초로 작성하긴 하였으나, ‘배점과 제시된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여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일부 법리나 포섭에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내용을 그냥 반영한 부분이 있는데, 굳이 덜어내지는 않았음을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